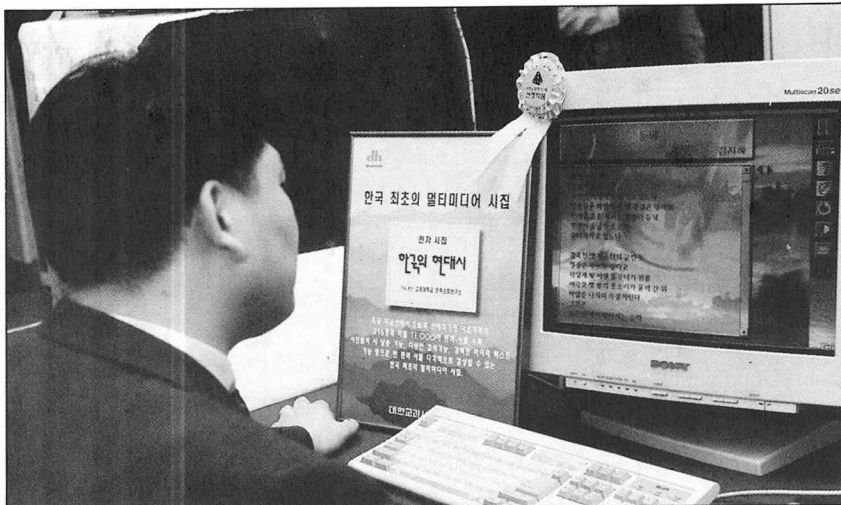


#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새로운 시집 출시

## 《한국의 현대시》 CD-ROM 타이틀 발표



《한국의 현대시》 CD-ROM 타이틀의 시연 장면.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한국의 현대시》 CD-ROM 타이틀이 나왔다. '문학의 해조작위원회'가 주최하고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소장 김홍규)와 대한교과서(주) (대표 이승구)가 2년여에 걸쳐 개발한 《한국의 현대시》 CD-ROM 타이틀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시인 316인의 작품 10,886여 편을 수록, 1910년대 이후 한국의 현대시를 집대성하고 있다.

특히 이 CD-ROM 타이틀은 시인별 시집별 시종류별 단어별 검색과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용어의 풀이, 찾자자 하는 시어, 연대별 동인지와 시대상황을 수록한 연표 등을 구성, 다양한 검색으로 우리 현대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영상과 음악을 배경으로 서정주·김지하·정호승·김준태·김명인 등 현존하는 시인들의 자작시 낭송도 이색적이다.

한편 대표작품 365편에 대한 평론가 해설, 작품별 하이퍼 텍스트 기능, 중고교교과서에 실린 시의 수록 등 교양자료로도 유용하다. (3475-3940)

###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도서목록'(95년 12월~96년 3월)을 발표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열린책들) ▲해리의 발견(열림원) ▲한국 윤리의 재정립(철학과현실사) ▲튀는 인생 이라야 산다(보성출판사) ▲21세기를 여는 상상력의 창조자들(여성신문사) ▲성공적인 뉴 리더십(서울프레스) ▲북한 50년(연합통신)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웅진출판) ▲'96우수단편소설 모음(삼문) ▲살아있는 느낌을 위해(훈민정음) ▲첫

눈송이에 관한 전설(새로운사람들) ▲연어(문학동네) ▲중국현대단편선(혜원출판사) ▲우리말 바로써야 한다.(집문당)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백가지(현암사) ▲즐거운 과학산책(학민사) ▲성의 기원(민음사) ▲자연의 수퍼모델(동아출판사) ▲한국 역사의 이해(집문당) ▲삼국유사의 현장기행(문예산책) ▲까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우리 문학사) ▲문화의 산길들길(화산문화)

### 사회문화학교 강의

소나무출판사와 환경과 자연철학연구소, 사회문화학교, 한글방을 중심으로 한 '조합공동체 소나무'(조합장 최종덕)가 지난 3월 창립한 이후 처음으로 제4회 사회문화학교를 열었다. 지난 5월25일 <대중문화와 상업주의>(김성기) 첫 강의를 시작으로 <노란 영화와 빨간 영화의 변증법>(장선우) <사회를 노래하는 음악, 음악을 노래하는 사회>(김영동) 등 오는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합동교육원 강당에서 <21세기를 향한 우리 대중문화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갖는다. (337-6944)

### 대산문학상 수상후보 추천접수

재단법인 대산재단(이사장 신창재)은 제4회 대산문학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번역 등 5개 부문에 걸쳐 94년 6월 이후 단행본으로 발표된 모든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8월2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총 1억2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수상작은 외국어로 번역 출판하게 된다. (725-5417)

### 프랑스 아동도서전 개최

'교보문고'와 '프랑스대사관' '프랑스 에디씨옹'이 주최하고 '르 노트르 파리'가

협찬하며 한국어린이도서협회가 후원하는 <프랑스 아동도서전>이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 교보문고 외국서적관 앞 전시장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는 앞으로 프랑스문화원(6월7일~15일),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6월17일~22일) 삼성어린이박물관(7월 6일~31일)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 번역물 출판 세미나

에릭양 에이전시(대표 양원석)는 지난 5월15일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신조사(新潮社) 다카이로 와카이 편집부장을 초청, <신조사의 번역물 출판 경험과 에이전시 활용법>에 관해 강연했다. (592-3356)

### 전자출판협회 CD롬 신제품 발표회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는 오는 6월 18일 KOEX 대회의실에서 전자신문사와 SKC의 후원을 받아 'CD롬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 날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CD롬 타이틀 가운데 우수한 제품을 엄선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이번 행사에는 SKC, 세광에이타테크, E.POINT, 동아출판사, 계몽사 등 5개사의 제품이 전시된다. (722-6486)

### '좋은 어린이 책' 원고 및 독후감 공모

(주)창작과비평사(대표 김윤수)는 수상자들에게 97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 참관의 특전이 주어지는 제1회 좋은 어린이책 원고와 어린이 독후감 공모를 실시한다. '좋은 어린이 책' 원고 부문은 창작 부문과 비창작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단행본 한권 분량의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독후감 부문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창비아동문고'에 대한 독후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마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718-0543)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툭툭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벌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술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정가: 6,000원

**동아출판**  
TEL: 861-4818  
853-5608

싱싱한 일본 남자가 쓴  
밥상 위의 한일 전쟁

알미운  
아내는  
한국인